

〈여성의원들의 후원금 (모금)〉

박영숙(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제 17대 국회에 의석비율 13%인 39명(선출 10명, 비례 29명)의 여성의원들이 진출함으로써 여성정치 참여 세계순위가 101위에서 62위로 **개신된** 한편 국내에서는 여성정치원년을 기록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기에 이르렀다

여성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7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들의 활동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른감이 없지 않으나 지난 정기 국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의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입법활동에서 여성의원들은 1,834건의 공동발의에 참여하였으며 여성의원의 대표발의 또는 개인발의 건수가 129개인데, 이중 본회의에 54개 법안(41.9%)을 상정시켜서 24개 법안(18.6%)을 처리하는 활발한 입법활동을 추진하였다. 정쟁으로 일룩진 파행국회가 아니었다면 이들이 발의한 사회적 약자, 여성 또는 민생관련 법안들이 분명히 더 많이 햇볕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27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정기국회 국정감사 평가에 의하면 과거에 비해 의원들의 질문수준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으로 정화된 데에는 여성의원들의 성실성, 전문성, 열정, 그리고 섬세함이 한 몫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모니터단이 선정한 우수의원 57명중 30.8%인 12명이 여성의원이라는 데서 입증된다.

여성의원들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있는 ‘평등국회지킴이’의 기록에서 보면 정치적인 관료와 다선의 권위가 지배하는 국회에서 지금까지 여성의원들이 비록 국민이 바라고 있는 정치문화 개혁에 가시적인 기여는 못했으나 나름대로 자기 자리를 찾아 2005년도에는 사생의 정치를 이끌어낸 길잡이로서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후원금 모금에서 여성의원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총선전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의원들이 공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듣고 있지만 여성의원들에게는 또다른 장벽이 가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남녀공학 출신인 한 여성의원의 말에 의하면 동창생인 같은 조건하의 남성의원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아마도 여성의원에게는 청탁이 어렵다는 데서 찾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그것은 사실이였다. 후원금 모금에서 여성의원이 겪는 장벽은 또다른 성차별의 한 현상으로 극복해내야하는 과제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과거에 큰 몫을 했던 법인의 후원금 기부와 의원별 후원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개인후원금은 우송으로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 얼굴없는 지원이다 보니 후원금 모금이 부진하게 된 것이다. 반면 건전한 소액후원금 기부자들에게는 10만 원 한도에서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졌다. 맑은정치문화를 갈망하고 있는

소액다수 후원자들에게 회소식이 아닐 수 없다. 즉, 10만원 후원금을 연말소득정산시까지 빌려주는 셈이기 때문이다.

17대 국회에 39명의 여성위원을 진출시킨것은 여성계와 깨끗한 정치, 생활정치를 기대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집단적인 노력의 결과였다. 여성의원들이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제대로 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책임도 여성계와 이들을 지지한 유권자 집단이 공동으로 져야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의원별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그들의 활동을 평가하고 격려하며 후원하기를 원하는 의원을 선정해서 후원하는 것이다. '후원금 보내기 캠페인'은 릴레이식으로 전개하여 개별의원 후원금 계좌에 송금할 수 있다. 의원들의 홈페이지나 계좌번호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 한국여성재단(02-595-6364)로 문의해도 된다.

여성위원의 후원금 모금에 여성계 또는 사회가 나서서 집단적인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은 이미 여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에밀리리스트>활동이 하나의 예로써 후보자를 발굴해서 공개 공천하고 당선을 위한 일과 후원금 모금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민이 바라고 있는 투명한 정치, 생활정치로의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 전환은 이의 정치 견인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위원을 지원하는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후원금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후원금 계좌를 개설하여 후원금을 보내고 그리고 친구에게 권한다.

01 44 24

여성위원의 후원금 모금에 여성계 또는 사회계 내의 잠재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것은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약속 하였음. 미국의 <에밀리 리스톤> 활동이 하나의 예이다. 후보자를 발굴해서
 공개공천하고 당선위위한 입후보금 모금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국민이 빠르고 많은 후원하는 정치, 생활정치로의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 전환은 정의
 민의를 양립을 바탕으로 한다. 여성위원을 지원해줄 여러 사회적 인사 있다.

대형의 수리 2와 1의 수리 2와 2%

104
7 명 주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1세대 중 3대에 39명 (신종석 10, 비례대표 29)의 여성이던 이 정호하드로 13%의 의석
을 차지하여 제1회 여성국회 참여 수가 101위에서 62위로 갱신했다. 이러한 결과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성계와 신계로 대표되는, 호남의 공천노력, 위촉노력을 집중하게 된 것
때 중간의 양력 대결로 정치문화 개혁의 의지가 맞물린 데서 성취해 낸 것이다.

17대 국회가 중립을 지키고 있는 국회 제정하기까지 7개월간의 애쓰고 노력의 결과로 의결총회를
실현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입법활동에 있어 1834건의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한편 여당 의원 24명의
합의인원이 129개나 되며 이중 상정건수는 54개 법안(41.9%)이고 본회의에서 24개
(18.6%)를 통과시키는 열의를 보였다. 국회의 막강한 존재는 뒷전에 두어 권을 들여다 보면
이로써 국회가 제정국회로 대두하면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여당 관련 법안은 1834건의
합의인원이 129개나 되고 있다.

2014년 지인관계로 구성된 <국립강사 NGO 모넨터단>의 정기총회 국립강사들간의 의미 있는 관계에 비해 지금까지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국정교과서를 폐지하는 국강으로 강화된 이면에도 불구하고 두 단체는 여성위원들의 성소수성, 권위성 그리고 열성이 크게 작용했음을 지적. 모넨터단이 가진 한 우의적 5개 항목 중 30.8%인 12명이 여성위원이라는 데에서 입증된다.

[illegible]

다. 그러나 문제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후원금 모금에서 여성의원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다. 지난 1992년의 후원금 모금 결과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권역별별로 모금의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여성의원들에게는 더더욱 이렇기 기중되어 있는 듯 하다. 산업공학 출신인 한 여성의원도 말에 더
하면 동향생인 남성의원과 비교할때 문화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여성의원에게는
학력이 어렵다고 인식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그것의 실상이었다. 후원금 모금에서의 여성의원
의 참여는 어느 정도였는가를 보면 여성의원들이 하나의 현상으로서 극복해 내야 하는 과제이다.
현행 임계화 제도에서부터 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김계환은 아내에게는 아내의 권유로 금주해 내어 주는 리제이고.
후진금 모금 행사도 개회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개인 후진금도 우송으로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 열거없는
후진금 자금이 무진하게 된 것이다. 반대로 건전한 소액 후진금 의무를 위해서는 10만원 이하로 하여 건
한을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이 주어졌다. 후진금 의무를 열거하고 있는 소액 리제 후진금에 대해 회소
이다. 10만원 기무는 열거 소액의 리제에 대해 열거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17대 국회에 381명인 의원들이 10만원 이하의 후진금 의무를 열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7대 국회의 구성상의 여형의견을 존중하기는것은 예외적으로 생활권리를 기대하고 있는 국민
들의 집단적인 노력의 결과였다. 이들이 국민의 대가구조에서 최대치의 기능을 다하게 하는
책임은 예외적으로 이들을 지지한 유력지집단이 공동으로 지어야 한다. 그방향을로는 의원연
수제이기를 방문해서 그들의 활동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하고, 의원을 소임한다. 그리고
주요정책에기 관여하는 김레이싱으로 개명하여 주원전 제하에 송금한다. 의원들이
의원이나나 제정변칙에 대한 연대가 필요하다 경우 한국예행재판(02-SP5-6364)
에 응시해로 된다.

애생의원이 36년후인 지금 모든 애생에게 영수신처를 내서 감관쪽의 컴퓨터를 권제하는 것은
이제 애생의원에서 이행하고 있는 사실이다. 미국의〈메일리 리스〉합종이 내로 보내의 대이와
애생의원 후보자를 뽑을때에 호경합종은 이리 그들을 공개공제하고 당선시키지말라 하였으니
모든의위하는 자국적인 합종을 권제하고 있다

[illegible]